



감귤이 익어가는 계절 '귤림추색' 향연 속으로...

VITAMIN C
감귤
푸드코트
citrus foodcourt

제주의 가을은 눈길 닿는 곳마다 감귤빛으로 물든다. 황금빛 감귤엔 1년 내내 땀 흘린 농업인들의 정성이 가득 배어있다. 특히 올해는 여름 끝자락부터 이어진 장마에 3개의 태풍이 휘몰아치며 농업인들의 애간장을 태웠던 터라 감귤을 수확하는 감회가 어느해보다 남다르다.

예부터 가을이면 제주 곳곳에서 주렁주렁 매달려 장관을 연출하는 풍광을 두고 제주사람들은 '귤림추색(橘林秋色)'이라 해 영주10경의 하나로 꼽아왔다. 덜익은 감귤로 만드는 풋갈청에서부터 잘 익은 껍질은 말려 차나 한약재로 널리 활용되며 맛은 물론 건강에도 좋은 국민건강과일이 바로 제주감귤이다.

귤림추색의 향연이 최절정을 이루는 이달 8일부터 12일까지 닷새간 '2019 제주감귤박람회'가 감귤 주산지인 남원을 소재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일대에서 열린다. 제주자치도가 주최하고 제주국제감귤박람회조직위원회(위원장 양병식) 주관으로 올해 일곱 번째를 맞는 박람회는 감귤을 주제로 한 세계 유일의 박람회로 '감귤산업 50년, 미래감귤 50년, 제주감귤 100년의 가치'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특히 올해는 박람회 시작 사흘동안(8~10일) 오후 8시까지 야간개장해 농업인과 직장인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박람회 개막식은 8일 오후 5시에 열린다.

박람회는 5개 테마로 나뉘 제주 땅에서 생명나무, 대학나무를 거쳐 제주의 핵심산업으로 뿌리내린 감귤 이야기를 곳곳에 펼쳐놓는다. '100년을 느끼다'라는 테마로 만남의 광장과 감귤직거래장이 운영된다. '함께 성장하다' 테마로 감귤홍보관과 제주농업관, 감귤컨퍼런스, 비즈니스상담회가 운

영되고 '빛을 밝히다'라는 테마로 감귤숲길과 감귤원 돌담길투어 등이 운영된다. 또 '가치를 나누다' 테마로 산업전시관, 농기자재전시장, 우수감귤품평회 등이 선보이고, '하나가 되다'는 테마로 감귤푸드존, 예술황감제, 금물과원 퍼포먼스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감귤 산업전시관에서는 감귤 생산에서 수확, 유통, 융복합 산업까지 두루 살펴볼 수 있고 컨퍼런스를 통해 진피, 기능성 화장품, 풋갈제품화 방안 등 감귤 가공산업의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제주농업관에서는 진피와 감귤제품 시식회, 감귤 특허 전시, 스마트농업 농기계 체험 등 감귤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경험할 수 있도록 꾸며진다. 또 농가들의

이달 8일부터 23일(오전 10시~오후 4시)까지다.

박람회 입장권은 하루 1000원이다. 만 12세 이하 초·중학생과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독립유공자, 4·3희생자 유족은 무료입장이다. 박람회 관람 후에는 26개 도내 공영관광지 중 1곳을 무료 관람(소인 당일 입장에 한함)할 수 있다. 또 서귀포지역 11개 민영관광지와 연계해 박람회 관람권 소지자에게는

‘2019 제주감귤박람회’ 11월 8~12일 서귀포농업기술센터서
감귤 홍보관·산업관·품평회에 문화·체험프로그램도 다채
개막일부터 사흘 야간개장... 현장서 감귤 수확체험도 가능

고품질감귤 생산 방법을 공유할 수 있는 감귤품평회장도 마련된다.

다양한 문화·체험행사도 빼놓을 수 없다. 어린이사생대회, 감귤 사진공모전, 귤빛가요제, 청소년 댄스 경연대회, 귤빛공연 버스킹공연, 귤림추색-별자리이야기 등의 문화행사와 체험프로그램으로 행사장내 금물과원에서 감귤 도독을 잡아라, 연날리기, 미로원 감귤찾기, 조물조물 감귤 팩토리(factory), 감귤캔들·진피비누 만들기 등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새롭고 맛있는 감귤을 직접 수확해서 맛보는 감귤따기는 관광객들에게 인기 체험거리다. 1인당 3000원의 체험료를 내고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제주농업생태원에서 타이백으로 재배한 고품질 감귤을 수확할 수 있다. 수확한 감귤 시식과 함께 1kg은 가져갈 수 있다. 체험은

박람회 기간에 10~50% 할인혜택(중복할인 불가)을 준다.

박람회 기간 행사장 주변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행사장 인근을 순환하는 셔틀버스도 운영한다.

양병식 감귤박람회 조직위원장은 "제주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감귤산업의 미래 100년을 위해 국민 과일을 넘어 세계 과일로 부상할 수 있도록 농업인, 도민, 관광객 등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박람회를 준비하고 있다"라며 "특히 2024년 세계감귤학회가 제주에 유치된만큼 이에 대비하고 세계적인 국제박람회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착실히 준비하고 있는만큼 많이 찾아달라"고 밝혔다. ☎ 710-3091~7.

글·문미숙기자 ms@ihalla.com
사진·제주국제감귤박람회조직위원회 제공

40년 전통 수제 신사복 전문

골덴라사

맞춤 양복은 명품(名品)입니다.
맞춤 양복은 오직 한사람만을 위한
예술품입니다.



추동복 신제품 대량입하 저렴한 가격으로 모시겠습니다.

골덴라사 | 제주시 남성로 166(남문로터리 서쪽) T. 722-3679, H.P 010-7622-3679